

공동주택 공유공간 연구의 흐름에 관한 연구**

-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

Trend of Common Space in Multi-unit Dwelling Through Domestic Research

- Focused on the Research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

Author 이학성 Lee, Hak-Sung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안소미 An, So-Mi / 정회원, 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PhD
이연숙 Lee, Yeun-Sook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PhD

Abstract In the 1960s,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created the social atmosphere of individualism in Korea. Individualism has weakened social ties, led to the breakdown of communities, and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So, the paradigm is shifting to a shared society and there are moves to seek ways to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community. As part of the initiativ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common space in multi-unit dwelling, the typical Korean housing type, is increasing.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ends of domestic research about common space,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cademic world and explore the future plans of the common space.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mainly used and statistics were additionally used to analyze 172 preceding research. As a result, research on common spaces showed a steady increase to the current time. And research was being diversified in the field of publishing journals, research contents, research methods and facilities. Until now,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improvement of plan and the quality of common space by identifying the attitude survey, space planning, and the actual situation. Thus many more studies about proper way to operate and manage common space need to be conducted. It is considered that the common space will develop more efficiently. The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groundwo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space and serve as concrete data to show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Keywords 공유공간, 공동공간, 커뮤니티 공간, 연구 경향, 흐름
Shared Space, Common Space, Community Space, Trends, Trends of Research, Literature Review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은 196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왔다. 개인주의는 점차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공동체가 와해됨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사회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최병두, 2000; 차재영, 2008; 변은영·김주연·하은경, 2012).¹⁾ 최근 소셜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가 공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초연결사회로 일컬어지고, 공

유사회체제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에서,²⁾ 공유와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공동주택내 공유공간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유공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에서는 2013년 말부터 ‘공동체주택·사회주택’을 명칭으로 한 공동주택 관련 정책을 제시해오고 있다.³⁾ 이때 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eunsooklee@yonsei.ac.kr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17AUDP-B068892-05#)
본 논문은 첫번째 저자의 연세대 석사학위논문(2018)작성 중 연구됨.

1) 김문석, 대한민국 고독지수 78점, 외로운 한국사회...개인주의·사회계층간 대립 심화가 고독감 상승 원인, 2018,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4041506013&sec_id=561801&pt=nv
2) 황미영, 공유문화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공간의 설계요소 및 인프라 체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2), 2018, p.86
3) <https://soco.seoul.go.kr/>

거 빈곤층 확산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이웃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공동체 활성화를 전제하여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다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 주택 관련 정책으로 도입되기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공동주택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유공간과 함께 관련 연구주제도 발전해왔다. 그러나 현재 공유공간은 그 개념이 아직 분명하지 않고, 관련 법제도도 미미하여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⁵⁾. 이에 본 연구는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의 흐름을 통해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를 진단해 이후의 공유공간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배경적 지식 축적의 차원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으로써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유공간이 그 역할과 발전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시점에 있어, 더욱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국내 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유공간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후속 연구를 위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새로운 공유공간을 모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헌 고찰

2.1. 공유공간의 발전과 법적기준

한국은 1960년대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현상을 해결하고자 주거의 양적 공급을 강조한 고밀도 주거형태를 다량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1980년대에 이르러 주거환경의 획일화, 폐쇄적인 특성으로 거주민들 간 교류 상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⁶⁾. 1990년대에는 아파트 건축이 활기를 띠어⁷⁾, 본격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기를 맞았다⁹⁾. 2000년대에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이웃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조성을 아

파트 계획의 기본 화두로 여겼다¹⁰⁾. 또한, 문화·경제 수준 향상으로 유지·관리를 포괄적으로 보기 시작했다¹¹⁾. 이처럼 관련 규정도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발전해왔다.

1964년에 최초의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공유공간을 언급한 법적 기준은 제시된 바 없었다. 실제 이 시기의 공동주택은 제대로 된 공유공간은 물론이고, 관리 사무실조차 없는 아파트가 대다수였다.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주된 주거형태로 공동주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1973년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주민운동시설, 공중목욕탕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일부 규정이 제시되었다. 이후 잠실단지계획을 중심으로 생활여건시설의 조성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에는 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생활여건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이때 기준은 1979년부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포함되어 법제화되었다¹²⁾. 본 항목들은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설치규정으로 지속적인 개정이 되어왔으며, 특히 면적산정에 관한 항목들이 강화되었다. 1991년에 이르러서는 공동주택관련 시설설치에 대한 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합되면서 면적에 대한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몇몇 기존 시설들은 삭제되고, 탁아소나 문고 등의 시설 유형이 추가되었다¹³⁾.

2018년 3월 기준 법령의 공동주택 공유공간을 정리해보면¹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나뉜다.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 및 시설 등이며,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거주자의 취미생활이나 가정의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속한다.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세부시설

| 시설분류 | 세부시설 |
|------|---|
| 부대시설 | - 주차장, 관리사무소 -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 및 시설 (수해방지 등, 안내표지판 등, 통신시설, 보안등, 가스공급시설, 비상급수시설, 난방설비등, 폐기물 보관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방충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급·배수시설, 배기설비...) |
| 복리시설 | - 근린생활시설 - 어린이놀이터 - 유치원 - 주민공동시설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용 취사장, 공용 세탁실) |

4) 남원석,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의 현황과 과제, 건축 60(6), 2016, p.11
5) 오정석, 서울시 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향후과제, 한국지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7
6) 최혜진,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8, p.1
7)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건축 활기 전망, 19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2&oid=001&aid=0003397898>
8) 조성희, 강혜경, 아파트 공유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9(3), 1998, p.48
9) 이남식, 서귀숙, 1960~2007년 수도권 아파트단지의 공동생활공간 변화 과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2008, p.98

10) 서수정, 백혜선,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0(11), 2004, p.219
11)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2005, p.217
12)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30년사, 대한주택공사, 1992
13) 최병두, 도시공동체를 위한 아파트 단지 공유공간의 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3호, 2005, pp.40-42
14) 주택법 제1장 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장 2조, 4장, 5장 참조

2.2. 공유공간의 범위와 분류

공유공간은 사전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공용(共用)·공유(共有)’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에 공용공간, 공유공간, 공동공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며, 해당 공간에 대한 범위와 분류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비록 명확히 정의되어 지정된 바는 없으나, 현재까지의 개념으로 구체화되기까지 과거의 다양한 연구가 기반이 되었다. 특히, 많은 이론가들이 언급한 공유공간과 관련된 특성은 공유공간의 분류와 범위에 있어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Altman(1975)¹⁵⁾은 공간의 차원을 세포막에 비유해 영역을 나누어 보았으며, 각 영역의 경계적인 성격에 따라 형성되는 영역성, 독자성, 안전성과 같은 특성들을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Newman(1997)¹⁶⁾의 경우 크게 사적공간에서 공적공간으로 주거지 공간을 분류하였으며, 반사적 공간과 반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대한 영역성과 방어적 성격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특성에 따라 분류된 공간의 구조에서 공유공간은 대개 개인적인 공간과 공공의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매개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오기 시작했다.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유공간의 범위를 크게 나누면 개인주거공간과 인근지역사회 사이의 모든 공간을 칭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를 예시로 분류하면, 개인단위주거 밖의 복도부터, 전체 아파트 단지 출입구까지의 모든 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한정되어진 공동주택 내 공유공간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진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분류와 범위가 달라진다. 김미희 외(1997)는 공유공간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수납공간, 기초생활공유공간, 자녀활동공간, 녹지공간, 사회체육시설’로 분류하였다. 조성희 외(1998) 또한 ‘육아·가사·여가생활·복지 분야 시설,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기능과 성격에 따라 보았으며, 더불어 공간의 위치에 따라 나누었다. 서귀숙(2003)의 경우, 공간의 위치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으며, 김우성(2005)은 공간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크게 실내·외로 분류 후에 실내 공간을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로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우소연 외(2013)의 연구에서도 공간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최인영 외(2013)의 연구에서는 공간의 위치에 따라 혼합하여 공간을 분류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공유공간관련 선행연구의 공간 분류와 범위

| 저자 | 공간구분 | 세부공간 |
|--------------|------------|--|
| 김미희 외 (1997) | 수납공간 | 공동창고, 세대별 보관창고, 유모차/자전거 등의 보관소, 지하주차시설 |
| | 기초생활 공유공간 | 공동식당, 공동세탁실, 다목적행사실, 노인복지회관, 소규모작업장 |
| | 자녀활동공간 | 공동놀이방, 실내놀이공간, 공동독서실, 종일제 탁아시설 |
| | 녹지공간 | 실내정원, 녹지시설, 피크닉시설, 환경친화적인 공원 |
| | 사회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잔디의 산책로 및 조깅코스, 공동휴게실 |
| 조성희 외 (1998) | 육아관련 분야시설 | 유아공동놀이방, 어린이 놀이공간 |
| | 가사관련 분야시설 | 공동세탁시설, 공동빨래/건조시설, 공동저장시설, 공동세차시설 |
| | 여가생활 분야시설 | 간이운동시설, 독서/도서/공부방, 취미/특강실, 통신/업무 서비스실 |
| | 복지분야시설 | 노인복지시설, 휴게시설, 모임/행사실, 공동창고, 공동화장실, 환경보호관련시설 |
| | 외부공간 | 어린이 놀이공간, 간이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녹지/수경공간, 조깅/산책, 단지 내 보행/자전거도로, 주차장, 환경보호 관련시설 |
| 서귀숙 (2003) | 단위세대 주변공간 | 발코니, 창고 등 |
| | 주거동 내 공용공간 | 현관 입구, 복도, 계단, 홀, 엘리베이터, 더트, 지하실, 옥상 등 |
| | 주거동 밖 공용공간 | 주차장, 관리사무소, 전기 및 기계실, 노인정, 공원 등 |
| 김우성 외 (2005) | 실내 공용 시설 | 어린이놀이방, 실버룸, 다목적실, 연회장, 주민회의실, 취미실, 노래방, 게스트룸, 게임룸, 영화감상실, 코인 세탁실, 택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
| | 주민 운동 시설 | 클럽하우스,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사우나, 스쿼시 |
| | 실외공용시설 |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광장/플라자, 공원/녹지 |
| 우소연 외 (2013) | 기초생활공간 | 상업시설, 홀/로비, 생활지원센터, 세대창고, 세탁실, 게스트룸, 자전거보관소, 택배보관소, 공동식당, 공동바 |
| | 커뮤니티공간 | 다목적연회장, 주민회의실, 주민휴게실, 클럽하우스, 경로당, 보육시설, 광장시설, 공원/녹지, 실내정원, 어린이놀이터 |
| | 여가활동공간 | 전시시설, 취미실, 도서/독서실, 멀티미디어실 (노래방/DVD룸), 청소년 수련시설 |
| | 운동시설공간 |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탁구장/담구장 |
| 최인영 외 (2013) | 작업 및 교육공간 | 비즈니스룸, 소규모작업장, 문화센터, 정보센터 |
| | 주동내 공용공간 | 층홀, 엘리베이터, 복도 및 계단, 필터 등 |
| | 옥외 공용공간 | 조경 및 녹지공간, 벤치, 정자 등 휴게시설, 테마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실외운동시설(테니스장, 운동기구 등), 어린이놀이터 |
| | 주변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도서실, 주민회의실 등), 실내운동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경로시설,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
| | 관리 및 서비스시설 | 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시설 |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선행연구이며,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공

15) Altman, Irwin,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and Crowding, Wadsworth Pub. Co., USA, 1975

16) Newman, Oscar, Creating Defensible Space, DIANE Publishing, USA, 1997

간, '공동공간', '공용공간', '커뮤니티 공간', '부대복리시설' 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인 DBpia, Riss, Google Scholar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검색결과, 1989년을 기점으로 2017년 10월 기준, 총 229건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이 중 온라인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공유공간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정된 공동주택¹⁷⁾ 공유공간이 아닌 경우를 1차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단위주거공간에 속하는 거실과 같은 공유공간을 의미할 경우를 2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72건의 선행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보조적으로 양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으로 내용분석기법(content analysis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통계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기법은 문서(text)에 담긴 메시지의 특성, 의도,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된 유목과 단위에 의거해 분석하는 기법으로¹⁸⁾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우선적으로, 분석유목 설정을 위해 주택관련 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았다. 류현주 외(2010)는 노인주거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자 '년도, 출처,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분석유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박재현 외(2016)와 박지선 외(2017)은 각각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개조 관련 선행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분야, 연구유형,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주요 서비스프로그램, 주택유형'과 '학술지 분야,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지, 연구방법'을 분석유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분석 유목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분석 유목은 크게 '계재년도, 게재 학술지,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지'로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선행연구 경향 파악을 위한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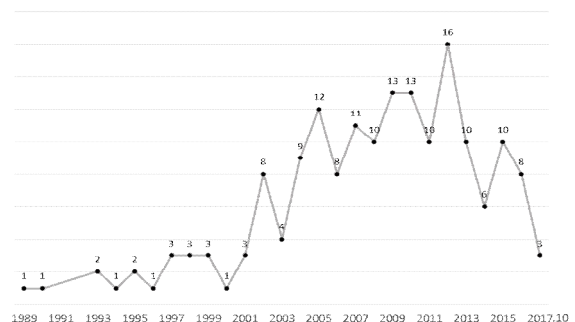
| 분석유목 | 세부 내용 | |
|---------|---|--------------------------|
| 계재 년도 | 선행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된 년도 | |
| 계재 학술지 | 연구 분야 |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따른 학술지의 연구 분야 |
| | 학술지명 | 선행연구의 게재 학술지 명 |
| 연구 내용 | 공간계획 (특성, 설계, 구조 등) | |
| | 의식조사 (만족도, 선호도, 요구도 등) | |
| | 현황 및 실태/행태 | |
| | 운영 및 관리 (비용, 프로그램, 관리 등) | |
| | 지표 및 평가 | |
| | 제도 및 정책 | |
| 연구 방법 | 기타 (변화과정, 영향인자, 경향 등) | |
| | 실태조사 | 현황, 실측, 측정, (실태관련)면담 |
| | 관찰조사 | (이용행태 등)관찰 |
| | 설문조사 | 대면설문, 설문지, 그룹 면담 |
| | 사례조사 | 주거사례, 문헌사례 |
| | 문헌조사 | 선행자료, 문헌, 법적 기준 |
| 연구대상 시설 | 분양아파트(단지), 임대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단지), 노인복지시설, 기숙사, 코하우징 (컬렉티브 하우스, 셰어하우스), 기타 |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재년도는 논문이 게재된 년도를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선행 연구의 흐름을 보았다. 게재학술지는 학술지 분야와 학술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학술지 분야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연구 분야에서 학술지의 중심적인 성격에 따라 분류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내용은 공간계획, 의식조사, 현황 및 실태/행태, 운영 및 관리, 지표 및 평가, 제도 및 정책, 기타로 세부 분류하여 보았다. 연구방법의 경우 실태조사, 관찰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문헌조사로 크게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시설은 분양아파트(단지), 임대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단지), 노인복지시설, 기숙사, 코하우징(컬렉티브 하우스, 셰어하우스), 기타로 분류해 어떤 공동주택 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지 파악하였다.

4. 연구결과

4.1. 게재 연도별 선행연구의 흐름

총 172건의 선행연구를 게재 년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는 아래의 <그림 1>와 같다.



<그림 1> 연도별 선행연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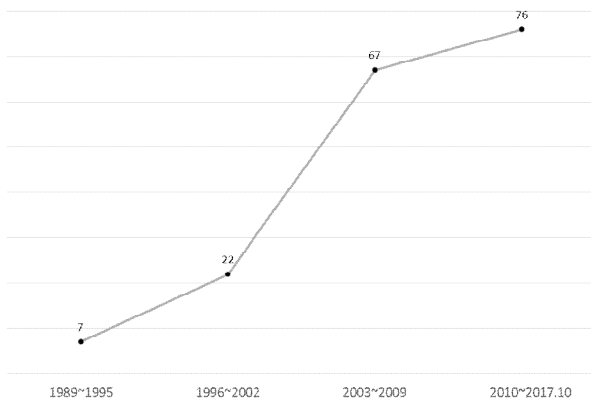
계재논문은 1989년을 기점으로 1996년까지 0~2건의 연

17) 「건축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거해 분류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세부적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함. 이외에도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음.

18) 한국성인교육학회, 교육평가 용어사전, 학지사, 서울, 1998

구가 간간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1997년에 이르러서 3건의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2012년까지 증가추세가 두드러졌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감소되는 듯하나 2017년부터는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정확한 추세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의 감소추세는 주택시장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부터 주택 건설 감소세를 보인 사회적 맥락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¹⁹⁾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년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편의상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7년씩 구분해 빈도를 분석하였다. 1995년까지의 논문이 7건에 불과한 것과는 달리, 1996년~2002년에 게재되었던 논문 건수는 22건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2009년에는 67건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또한, 2010년~2017년 10월까지의 7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7년별 선행연구 분포

이와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형태로써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1973년에 이르러서 몇 가지의 부대복리시설이 법적기준으로 제안되었다. 1980년대에는 양적 공급에 치우친 아파트 단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파트 건축이 활기를 띠게 됨과 함께 본격적으로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기를 맞았다. 주민들 또한 공동주택 건설 시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1995년 이전까지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는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고급화의 길을 걸으며, 커뮤니티 내부에 각종 생활편의 시

19) CERIK, 건설동향브리핑 29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1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설들이 함께 배치되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²⁰⁾. 이에 학계에서도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2003년 이후 연구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건설회사 중심의 공유 공간 공급시기를 지나, 2010년 이후에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합, 다양한 가족 유형, 다른 연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의 공동주택²¹⁾과 공유공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다학제적인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4.2. 게재 학술지별 선행연구의 흐름

게재 학술지에 따른 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KCI의 학술지 분야는 총 8가지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이며, 각 분야별로 소분류 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 학술지 분야는 KCI의 8가지 분야 중에서 5가지 분야에 속했으며, 총 33개의 학술지에서 대상 선행연구가 게재되어 있었다. 학술지의 연구 분야에 따라 해당 학술지를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다. 연구 분야별 학술지는 공학과 예술체육학이 각 8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이 7개, 자연과학이 5개, 복합학이 3개, 기타에는 2개의 학술지가 속해있었다.

<표 4> 연구 분야별 해당 학술지

| 연구 분야 | 학술지명 |
|-------|---|
| 공학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국토계획, 의료·복지 건축, 대한건축학회합 논문집,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논문집 |
| 예술체육학 | 디자인학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기초조형학연구, 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디자인지식저널,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논문집,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
| 사회과학 | 주거환경, 한국도시지리학회지, 국토연구, 도시설계, 대한부동산학회지, 부동산 학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 자연과학 | Family and Environment,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생활과학연구논총, 한국생활과학회 |
| 복합학 | 디자인융복합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청소년 시설환경 |
| 기타 | 한국가정과학회지, 사회과학연구(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와 같이 분류된 연구 분야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포비율을 보았다. 이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20) 정현목,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 수도권 브랜드 단지에서의 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실천, 비교문화연구, 22(1), 2016, p.487

21) 박정은, 이효원,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유공간의 디자인요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6), 2010, p.11

<표 5> 연구 분야에 따른 학술지 게재논문 분포

| 계재년도 연구 분야 | 1989~1995 | 1996~2002 | 2003~2009 | 2010~ 2017.10 | 합계 |
|---------------|-----------|-----------|-----------|------------------|-----------|
| 공학 | 6 (3.5) | 11 (6.4) | 32 (18.6) | 28 (16.3) | 77 (44.8) |
| 자연과학 | 1 (0.6) | 11 (6.4) | 17 (9.9) | 13 (7.6) | 42 (24.4) |
| 예술체육학 | - | - | 6 (3.5) | 21 (12.2) | 27 (15.7) |
| 사회과학 | - | - | 8 (4.7) | 9 () | 17 (9.9) |
| 복합학 | - | - | 2 (1.2) | 4 (2.3) | 6 (3.5) |
| 기타 | - | - | 2 (1.2) | 1 (0.6) | 3 (1.7) |
| 합계 | 7 (4.1) | 22 (12.8) | 67 (39.0) | 76 (44.2) | 172 (100) |

건수 (%)

학술지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공학 분야 학술지 게재 논문이 44.8%로 가장 높았다. 공학 분야 학술지 중에서는 ‘대한건축학회논문집’의 게재논문이 51건으로 2003~2009년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공학 분야 논문은 공간 계획적 관점에서 공유공간을 다루고 있었으며, 이를테면 의식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등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 분야가 23.3%로 높았다. 자연과학 분야에 속한 학술지는 모두 ‘생활과학’으로 소분류 된 학술지들이었으며, 그 중 ‘주거학회논문집’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3년에서 2009년까지 게재된 건이 14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자연과학 분야는 공간계획과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행태나 의식 등을 중심으로 보다 거주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았을 때, 1989년에서 2009년까지 공학·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2010년~2017년 10월에는 예술체육학 분야가 자연과학분야보다 높은 분포비율을 보였으며, 예술체육학 분야의 학술지들은 모두 ‘디자인’으로 소분류 되었다. 이에 예술체육학 분야는 디자인 프로세스나 색채, 운영이나 관리, 공간 특성 등 주거환경을 다른 요소들과 접목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 환경적 관점보다는 공간 계획적 관점에 가까웠다. 이외, 사회과학 분야에 속한 학술지는 모두 국제/지역개발로 소분류되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유공간을 다루었다. 이를테면 공동체나 커뮤니티 활성화 요인, 범죄, 인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본다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학과 생활과학관련 분야가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디자인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합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지 논문이 나타나 다학제간 관점으로도 연구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목표가 양적공급 중심에서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복리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함²²⁾과 함께 볼 수 있다. 즉, 학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단순한 공간에서 더 나아가 거주 환경이라는 보

22) 이남식, 서귀숙, 1960~2007년 수도권 아파트단지의 공동생활공간 변화 과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2008, p.98

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부대·복리시설의 법적인 기준이 완화되고, 주민 생활의 향상에 보다 구체화되어²³⁾, 학계에서도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을 통해 공유공간의 질적 향상이 더욱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과 내용을 종합한 것은 <표 6>과 같다.

<표 6> 게재 학술지별 흐름의 종합 및 요약

| 연도 | 연구 흐름 |
|-----------|---|
| 1989~1995 | 공학과 생활과학 분야 학술지 중심의 게재논문 |
| 1996~2002 | |
| 2003~2009 | 예술체육학, 사회과학, 복합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 논문 증가하며 공간계획적 관점에서 보다 주거환경적 관점으로 포괄적 |
| 2010~2017 | 다학제간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며, 특히 디자인 분야의 학술지 논문이 두드러지는 경향 |

4.3 연구내용에 따른 선행연구의 흐름

연구내용을 통해 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공간 계획(계획 특성, 설계, 구조 등), 의식조사(만족도, 선호도, 요구도 등), 현황 및 실태/행태(공간 현황 등), 운영 및 관리(비용, 프로그램, 관리, 유지 등), 지표 및 평가(공간평가지표, 평가 등), 제도 및 정책, 기타(경향, 변화과정, 요소 등)으로 나누어 연도별 분포 비율을 보았다. 이때, 연구내용에서 2가지 이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경우 중복으로 산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한 것은 <표 7>와 같다.

<표 7> 연구 내용에 따른 게재논문 분포

| 계재년도 연구 내용 | 1989~1995 | 1996~2002 | 2003~2009 | 2010~ 2017.10 | 합계 |
|---------------|-----------|-----------|-----------|------------------|-----------|
| 공간계획 | - | 8 (3.3) | 36 (14.8) | 41 (16.8) | 85 (34.8) |
| 의식조사 | 5 (2.0) | 9 (3.7) | 26 (10.7) | 26 (10.7) | 66 (27.0) |
| 현황 및 실태/행태 | 2 (0.8) | 7 (2.9) | 19 (7.8) | 25 (10.2) | 53 (21.7) |
| 운영 및 관리 | - | 1 (0.4) | 8 (3.3) | 7 (2.9) | 16 (6.6) |
| 지표 및 평가 | - | 1 (0.4) | 2 (0.8) | 8 (3.3) | 11 (4.5) |
| 제도 및 정책 | - | 1 (0.4) | 3 (1.2) | 4 (1.6) | 8 (3.3) |
| 기타 | 1 (0.4) | - | 3 (1.2) | 1 (0.4) | 5 (2.0) |
| 합계 | 8 (3.3) | 27 (11.1) | 97 (39.8) | 112 () | 244 (100) |

* 중복산정
건수 (%)

연구결과, 공유공간에 관련 연구내용은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가 85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의식조사, 현황 및 실태/행태, 운영 및 관리, 지표 및 평가, 제도 및 정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았을 때, 기타와 운영 및 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내용들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2017년 10월에는 7건으로 전년보다 1건 감소하였으며, 기타의 경우 2003~2009년 3건을 제외하고, 0~1건을 상회했다. 또

23) Ibid., pp.98-99

4.5. 연구대상시설에 따른 선행연구의 흐름

연구대상시설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고자 분양아파트(단지), 임대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노인복지시설, 코하우징(컬렉티브 하우스, 셰어하우스 등)으로 나누어 연도별 분포 비율을 보았다. 이때, 두 가지 이상의 시설 유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일 경우 중복으로 산정하였다. 이의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연구대상시설에 따른 게재논문 분포

| 게재년도 | 1989~1995 | 1996~2002 | 2003~2009 | 2010~2017.10 | 합계 |
|--------|-----------|-----------|-----------|--------------|-----------|
| 분양 아파트 | 6 (3.4) | 19 (10.9) | 32 (18.3) | 48 (27.4) | 105 (60) |
| 임대 아파트 | - | 3 (1.7) | 7 (4.0) | 16 (9.1) | 26 (14.9) |
| 주상복합건물 | - | - | 14 (8.0) | 2 (1.1) | 16 (9.1) |
| 노인복지시설 | - | 1 (0.6) | 5 (2.9) | 4 (2.3) | 10 (5.7) |
| 기타 | 1 (0.6) | 2 (1.1) | 3 (1.7) | 3 (1.7) | 9 (5.1) |
| 코하우징 | - | - | 1 (0.6) | 5 (2.9) | 6 (3.4) |
| 기숙사 | - | - | 1 (0.6) | 2 (1.1) | 3 (1.7) |
| 합계 | 7 (4.0) | 25 (14.3) | 63 (36.0) | 80 (45.7) | 175 (100) |

* 중복산정 건수 (%)

각 연구대상시설의 분포비율을 보았을 때, 분양 아파트가 105건(6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임대 아파트(14.9%), 주상복합건물(9.1%), 노인복지시설(5.7%), 기타(5.1%), 코하우징(3.4%), 기숙사(1.7%) 순으로 분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선행논문은 (임대/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1970년대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계획되었지만 2000년대 이르러서야 보편화되었다. 선행 논문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어, 서귀숙(2003)의 연구를 기점으로 주상복합건물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코하우징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1989년에서 2002년에는 게재된 바가 없으나, 2003년에 컬렉티브 하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에서 2017년 10월 사이 5건이 게재되었다.

이를 정리해 본다면, 공유공간은 「상품개발」의 차원에서 하나의 영리적인 자원으로 여겨져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당히 적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건물유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건물유형보다도 아파트에 다시금 집중되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앞서 보았던 학술지분야별 흐름에서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분야(국제/지역개발)가 나타나고, 연구 내용에서 운영 및 관리 등이 증가한 것을 통해 보다 소프트웨어적이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한 것은 <표 12>와 같다.

<표 12> 게재논문 내용별 흐름의 종합 및 요약

| 연도 | 연구 흐름 |
|-----------|------------------|
| 1989~1995 | 분양 아파트 위주의 연구대상 |
| 1996~2002 | |
| 2003~2009 | 주상복합건물 대상의 연구 증가 |
| 2010~2017 | 임대아파트 대상의 연구 증가 |

4.6. 종합논의

본 연구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유공간 관련 선행연구를 면밀히 살펴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까지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연구의 흐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크게 나타났던 것은 최근 공유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건축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던 1990년대를 기점으로 확연한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는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대상 시설이나 연구내용, 연구방법, 학술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분류가 등장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선행연구의 흐름을 보자면,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공유공간을 개선하거나 계획할 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할 수 있도록 거주 의식이나 공간 계획, 실태에 대해 거주민을 중심으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는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1980년대에서 이미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시기였다. 법적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공동주택이 점차 정착되어왔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수준 등이 향상됨에 따라서 단순한 공간의 질적인 개선을 벗어나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운영 및 관리 등 보다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프로그램이나 관리방안, 법적제도 등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시설들이 나타나 보편화되기 시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등 관련 선행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었다.

2010년 이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태를 고찰하거나 사례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017년에 가까워질수록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커뮤니티, 공동체’ 등의 활성화 요인이나 이와 관련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는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표 13>와 같이 종합 요약될 수 있겠다.

<표 13> 연구 결과의 종합 및 요약

| 구분 | 연구 흐름 |
|-------|---|
| 연도 | 1989~1995 공유공간 연구의 시작 |
| | 1996~2002 주거환경 질적 개선요구에 대응한 발전 |
| | 2003~2009 아파트 고급화와 함께 공유공간 연구의 급격한 증가 |
| | 2010~2017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 |
| 학술지 | 공학, 생활과학분야 중심 ▶ 사회과학분야 등 다학제간 관심 포함 |
| 연구 내용 | 공간계획, 의식조사, 현황 및 실태/행태 중심의 연구 ▶ 운영 및 관리, 법적 제도 등 연구내용의 다양화 |
| 연구 방법 | 설문·실태·관찰조사 중심의 연구 ▶ 문헌·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 등장 및 혼용 |
| 연구 대상 | 분양 아파트 중심의 연구 ▶ 임대아파트·주상복합건물·코하우징 등 연구대상시설의 다양화 |

5.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동체 와해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 학계에서 축적되어 온 지식의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진행될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이후의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연구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현재까지 공동주택 공유공간 연구의 흐름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는 의식조사와 공간계획, 실태를 파악을 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서 공간 계획적인 개선이나 질적 향상 방안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보였다. 이에 운영 및 관리나 법적제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이러한 운영·관리·제도의 부재는 단순한 공간만의 제공으로 실제적인 사용을 수용하지 못하여 주민 스스로 공간을 바꾸어 사용하는 공간변용으로 나타났으며, 변용 과정에서 사용률 또한 저조해지게 된다²⁴⁾. 따라서 물리적 공간만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이에 운영 및 관리, 법적제도 중심의 연구가 더욱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임대 아파트나 코하우징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공동체 와해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써 공동주택 공유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회문제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적 차원으로 ‘공동체 주택·사회주택’의 명칭 하에 공동주택 공유공간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공간이 안정되고 정착되기 위해선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분양 아파트외의 임대 아파트와 같은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 째, 신축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어 구체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단순한 계획요소의 도출은 결과를 실제 공간계획에 적용함에 있어, 개조나 리모델링의 특수성이 고려된 경우가 드물어 신축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빈집은 늘어가며²⁵⁾, 미분양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²⁶⁾에서 신축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개선시켜나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공동주택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온라인 검색을 기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온라인화되지 못한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선행연구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는 게재년도를 편의상 1989년부터 현 시점(2017.10)을 기준으로 7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흐름이나 경향을 보고자 할 때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지리라 여겨져 경향 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한 172건의 공동주택 공유공간 관련 논문의 흐름 분석은 공유공간의 정책적인 발전기에 있는 시점에서 학계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연구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공유공간 발전에 있어 기초 초석을 다지며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30년사, 대한주택공사, 1992
2.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2005
3. 한국성인교육학회, 교육평가 용어사전, 학지사, 서울, 1998
4. Altman, Irwin,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and Crowding, Wadsworth Pub. Co., USA, 1975
5. Newman, Oscar, Creating Defensible Space, DIANE Publishing, USA, 1997

25) 투데이코리아, [박현채 칼럼]내 집 마련 어려운데 빈집은 늘어, 2018,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836>

26) 브릿지경제, ‘악성’ 준공 후 미분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나, 2018,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606010001704>

24) 서수정, 백혜선,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0(11), 2004

6. 김미희, 문희정,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용공간에 대한 연구, 대한주거학회논문집, 8(3), 1997
7. 김우성, 심재현, 박승, 초고층 주거 복합 건축물의 사례에서 나타난 공용시설의 현황과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1(12), 2005
8. 류현주, 양세화, 노인주거 연구 경향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5), 2010
9. 박재현, 이연숙, 안소미, 최근 지원주택 연구의 흐름과 특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2), 2017
10. 박정은, 이효원,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유공간의 디자인요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6), 2010
11. 박지선, 이연숙, 장미선, 주택개조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경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1), 2017
12. 변은영, 김주연, 하은경, 소통하는 주거공간 디자인을 위한 경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7권, 3호, 통권 21호, 2012
13. 서귀숙, 도시 집합주택 공용공간의 구성형태와 활성화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19(12), 2003
14. 서수정, 백혜선,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0(11), 2004
15. 서희숙, 아파트 주동 공용공간 구성요소의 선호도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3), 2011
16. 오정석, 서울시 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한국지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7
17. 우소연, 일본 세어하우스 사례조사를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용공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2013
18. 이남식, 서귀숙, 1960~2007년 수도권 아파트단지의 공동생활공간 변화 과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2008
19. 정현목,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 수도권 브랜드 단지에서의 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실천, 비교문화연구, 22(1), 2016
20. 조성희, 강혜경, 아파트 공유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9(3), 1998
21. 조성희, 강혜경, 아파트 단지내 공동생활공간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1), 2004
22. 주서령, 박연심, 장성수, 박경옥,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프로그램 개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3(3), 2002
23. 최병두, 도시공동체를 위한 아파트 단지 공유공간의 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3호, 2005
24. 최인영, 생활공간적 측면의 아파트 공용공간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9(12), 2013
25. 최혜진,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8
26. 황미영, 공유문화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공간의 설계요소 및 인프라 체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2), 2018
27. 남원석,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의 현황과 과제, 건축 60(6), 2016
28. 최병두,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 공동체운동, 도시연구 6(0), 2000
29. CERIK, 건설동향브리핑 29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1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논문접수 : 2018. 05. 15]

[1차 심사 : 2018. 06. 05]

[게재확정 : 2018. 06. 28]